중국전국시대 인장(印章)에 반영된 인명 특징 연구*

문 병 순
(경남대학교)

1. 들어가며

중국에서 印章의 기원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異見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春秋時代를 초보적 사용시기로 보고 있다. 戰國時代에 이르러 印章은 귀족에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생활용품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중국인이 印章을 사용한 역사는 이미 2500餘年의 긴 시간이 흘렀다.

印章의 학술적 가치는 크게 역사, 문자, 예술 방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개인이 사용하던 姓名印章은 오늘날 印章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였던 신용의 징표였다. 人名은 개인을 대표함은 물론이요, 동시에 민족문화를 내포하고 있는 축소된 표본으로 볼 수 있어, 方寸크기의 印文을 통해 많은 문화 가치를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戰國시대 印章에 반영되어 있는 인명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문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 고대 인명은 廣義와 狹義 두 가지의 측면에서 설명할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7-A00486)

www.kci.go.kr

수 있다. 廣義의 의미는 인명은 물론이고 字, 號, 諡號, 筆名, 法名, 小名등을 포함한다. 狹義의 人名은 단지 '名'만을 의미한다. 戰國시대 印章인 경우, 일반적으로 '氏+名' 형식으로 제작되었기에 본 연구는 후자인 狹義의 '名'만을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또한 논문 記述의 편의상, 각 종 고문자 字形은 현대의 통용 문자인 楷書로 바꿔 사용했음을 양해 바란다.

2. 문헌에 보이는 중국인의 命名法

중국 고대인은 어떻게 命名을 하였을까? 그들만의 규칙 혹은 이론이 존재했었는가? 이에 대해 『左傳·桓公六年』에서 다음과 같은 상관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 신수가 대답하길 : 이름을 짓는 데는 다섯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信)의(義)상(象)가(假)류(類)가 그것으로 이름을 짓기 위하였을 때의 신(信). 장래의 번영을 생각하여 덕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의 의(義). 태어난 아이의 용모에 견주어 지은 이름의 상(象). 태어날 때의 사물에 견주는 류(類)가 됩니다. 제후의 나라이름, 벼슬이름, 산천의 이름, 질병, 제사지낼 때 쓰이는 짐승, 예물로써 사용하는 그릇의 이름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周(주)나라 사람은 생전의 이름을 꺼려하고 휘(諱)로써 조상을 섬기고 생전의 이름은 그 사람이 죽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이름으로 이름을 지으면 그 인명을 고치고, 관직의 이름을 사용하면 관직의 이름을 고치고, 산천의 이름을 사용하면 산천의 이름을 고치고, 가축이름을 사용하면 가축을 제사 때 사용하지 못하고, 예물에 사용하는 그릇이름을 사용하면 그 그릇을 예물로 쓸 수 없습니다. 진(晋)나라 희후(僖侯)가 사도(司徒)라는 관명을 빌어 이름을 작명했기 때문에 사도(司徒)를 중군(中軍)으로 고친 바 있고, 송(宋)무공(武公)이 사공(司公)이라는 관직이름을 사용하여 이름을 작명하여 관직의 이름을 고친 바 있고, 盧(노)나라 헌공(獻公)의 이름은 구(具)이고 무공(武公)의 이름은 방(放)이었기 때문에, 구산(具山)과 방산(放山)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관

www.kci.go.kr

계로 귀중한 것의 이름을 빌어 명명(命名)하는 것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1)]

이처럼 國名, 官名, 山川, 禽獸, 器物, 疾病 등은 모두 인명에 쓸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命名이론이 春秋戰國시대 人名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異見이 보이고 있다. 일부학자들은 이러한 命名法은 왕공귀족에 국한된 사항일 뿐 士大夫 및 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부학자들은 당시에는 특별한 命名法이 존재하지 않아, 각 종 병폐가 발생하자 이에 대해 비평하는 역설적 견해로 보고 있다. 이처럼 문헌에 보이는 제한된 인명 자료를 통해 당시의 命名法을 고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戰國시대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던 人名印章을 통해 당시의 命名 규칙을 고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래의 전통문헌 중심의 연구와는 달리 戰國시대 印章에 보이고 있는 人名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3. 戰國시대 인명의 특징

3. 1 문헌에 보이는 인명 특징

西周시대부터 春秋戰國시대까지 문헌에 보이는 인명 특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저술에서 토론 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印章에 보이는 인명과의 비교차원에서 기존 학자들의 결과물을 간략히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1) 申需對曰: “名有五, 有信, 有義, 有象, 有假, 有類. 以名生爲信, 以德命爲義, 以類命爲象, 取於物爲假, 取於父爲類. 不以國, 不以官, 不以山川, 不以隱疾, 不以畜牲, 不以器幣. 周人以諱事神, 名, 終將諱之. 故以國則廢名, 以官則廢職, 以山川則廢主, 以畜牲則廢祀, 以器幣則廢禮. 晉以僖侯廢司徒, 宋以武公廢司空, 先君獻 `武廢二山, 是以大物不可以命.”

www.kci.go.kr

1) 干支를 사용한 命名

商나라때부터 유행되어온 命名法으로 天干과 地支를 사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춘추전국시대로 들어서면서 음양오행설의 유행으로 干支에 五行이론까지 추가해 名과 字를 짓는 경우가 빈번해졌다.[2] 예를 들어, 秦의 '白丙'은 字가 '乙'이다. 丙은 五行 중, 火에 속하고, 乙은 木에 속해 火가 木에서 생겨남을 의미하고 있다.

2) 사물 및 가축의 명칭을 사용한 命名

지금의 관점으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춘추전국시대에 들어서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각종 사물 및 가축명을 사용하여 이름 짓은 경우가 흔히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伯車', '宋木', '囊瓦', '司馬牛' 등.

3) 속된 표현을 사용한 命名

潘英의 연구에 의하면 상식을 벗어난 이름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3] 예를 들어, '無, 忌, 弱, 乞, 圉' 등. 이러한 이름들은 개화기 한국 사회에서 귀신에게서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미신적 성향의 속된 兒名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허사를 사용한 命名

兩周시대의 인명은 일반적으로 單名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름 중에 허사를 첨가하여 複名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晉나라의 '介之推' 이름에 대해 杜預는『左傳·僖公24年』에서 '之'를 어조사로 풀이하고 있다.[4] 이처럼 성씨와 인명사이에 '之'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역할은 어조사로서 생략이 가능하며 單名으로 볼 수 있겠다.[5] 이밖에 인명에

2) 王泉根,『華夏取名藝術』, 61쪽.
3) 潘英,『中國上古史新探(下)』, 498쪽.
4) 杜預注:「之, 語助.」
5) 北京大學中文系中國文學史教研室編,『先秦文學史參考資料』, 164쪽.

www.kci.go.kr

의미 없이 첨가하는 허사로는 '不, 于, 無, 弗' 등이 있다.

3. 2 印章에 보이는 인명 특징

고문자 자료를 이용해 중국 고대 인명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李學勤의「先秦人名的幾個問題」라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전통 문헌과 甲骨, 金文에 보이는 인명 자료를 통해 先秦 인명의 특징에 대해 대략적인 서술을 하고 고문자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6] 그 후 劉釗의「古文字中的人名資料」는 戰國시대부터 西漢까지 고문자 자료에 보이는 인명에 대해 폭 넓은 안목으로 창의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7] 다만 방대한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에, 시대별 구체적 특징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고, 또한 연구의 범위가 複名에 한정되어 있어 單名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선행 연구 결과물에 기초하여, 연구 범위를 戰國시대 印章에 한정하여, 좀 더 구체적인 시대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印章에 보이는 單名 특징

① 干支를 사용한 命名

태어날 날을 이름으로 사용하는 전통적 방법으로, 商나라부터 戰國시대까지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命名法이다.

少師乙『彙編』2211　宋壬『彙編』1393　長午『彙編』0667
公孫寅『彙編』3841　宋己『彙編』1391　趙辛『彙編』1055
司寇卯『彙編』3832　長丙『彙編』0747　長戊『彙編』0704

② 신체 부위를 사용한 命名

태어날 때의 신체적 특징을 근거로 命名한 것으로, 문헌에 보이는 것보다

6) 李學勤,「先秦人名的幾個問題」,『當代學者自選文庫·李學勤卷』.
7) 劉釗,「古文字中的人名資料」,『出土簡帛文字叢考』.

www.kci.go.kr

좀 더 다양한 신체부위가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足, 頭, 腹, 牙, 目, 耳' 등이 보이고 있는데, 일반 嬰兒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태어난 것에 착안한 것으로 추측된다.

趙足『彙編』0946　趙頭『彙編』0933　公孫腹『彙編』3894
鑾牙『彙編』2503　駒目『彙編』2143　公孫耳『類編』0387

③ 질병을 사용한 命名

중국 고대 사회에서 嬰兒가 병에 걸려 사망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戰國시대 印章에서도 각 종 病名 혹은 신체적 障碍를 근거로 命名하는 특이한 현상이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痞, 疥, 瘡, 瘍, 病, 盲' 등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嬰兒에게 惡名을 命名한 것으로 추측된다.

趙痞『彙編』1032　趙疥『彙編』1028　趙瘡『彙編』1034
長瘍『彙編』0792　長病『彙編』0795　長盲『彙編』0751

④ 사물의 명칭을 사용한 命名

중국 고대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命名法으로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각 종 사물을 사용하여 命名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인 취향 또는 생업과 관련된 사물을 사용하여 자녀에게 命名한 것으로 추측된다.

趙玉『彙編』0897　趙角『彙編』0893　趙簋『珍秦』48
宋車『湖南』P.40　長舟『中國篆刻』1997.13　淳于旗『彙編』3195

⑤ 부정적 어휘를 사용한 命名

春秋戰國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명에 부정적 의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문헌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 印章에서도 역시 같은 현상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惡鬼에게서 嬰兒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미

www.kci.go.kr

신적 성향의 속된 兒名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趙忌『彙編』0974 趙夭『彙編』0911 趙狂『彙編』1012
趙虐『彙編』0945 邦惡『彙編』2068 長死『彙編』0883

⑥ 긍정적 어휘를 사용한 命名
자녀의 미래에 대해 건강과 장수, 부와 명예를 기원하는 긍정적인 이름을 취하고 있으며, 부정적 어휘를 사용한 경우와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다.

趙志『彙編』0972 趙昌『彙編』0960 趙喜『彙編』0889
趙壽『彙編』1049 王豐『彙編』0635 長聖『彙編』0778

⑦ 동물 및 곤충의 명칭을 사용한 命名
기존 문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命名法으로 당시의 문화적 취향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趙龍『彙編』1050 王狗『彙編』0639 長虫『彙編』0729
喬豕『彙編』1224 公孫馬『彙編』3893 肥象『彙編』3273

⑧ 경제활동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한 命名
戰國시대에 사회적 경제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사람들의 금전적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命名法들이 보이고 있다.

趙買『彙編』1054 宋市『彙編』1369 長貣『彙編』0735

⑨ 색채를 사용한 命名
각 종 색채의 명칭을 사용하여 命名한 경우로, 태어날 때 피부색 특징을 근거로 '黃, 黑, 赤, 朱' 등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長黃『彙編』0728 長黑『彙編』0736 趙赤『彙編』0892

www.kci.go.kr

公孫朱『彙編』3910 上官黑『彙編』3967

⑩ 지명을 사용한 命名

인명에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는 기존 문헌에도 자주 보이고 있으며, 출생지 혹은 본적을 근거로 命名한 것이다.

尹宋『彙編』1300 長秦『彙編』0777 長魯『類編』218
公孫秦『彙編』3853 公孫郾『彙編』3857

⑪ 신분 및 호칭을 사용한 命名

'臣, 母, 子, 孫' 등 호칭을 사용하여 命名하는 방법으로, 國名에서 기원된 姓氏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趙臣『彙編』0891 趙母『彙編』1060 趙孫『續一』32 陳子『續一』59

⑫ 시간 개념을 사용한 命名

인명에 干支를 사용한 것은 구체적으로 태어날 날짜를 의미한다면, '朔, 旦, 春, 秋' 등은 태어난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趙朔『故宮』1987.48 趙旦『彙編』0962 趙春『珍秦』152 □秋『彙編』1902

⑬ 기타

위대한 인물, 숫자, 자연 현상 등을 사용하여 命名한 경우도 종종 보이고 있다.

趙禹『彙編』0904 趙湯『彙編』1007 長九『彙編』0732
長山『陝西』862 長雨『彙編』0762 趙坡『珍秦』49

이상 戰國시대 印章에 보이는 單名의 특징은 총13가지로 분류 할 수

www.kci.go.kr

있겠다. 기존 선진 문헌에 보이는 인명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인명을 사용하고 있어 당시의 사회적 풍토 및 문화적 특징을 이해함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戰國시대까지 이름을 취할 때, 複名보다는 單名을 선호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 印章에 보이는 複名 특징

① 질병과 관련된 命名
單名에서는 구체적인 病名을 사용하고 있다면, 複名에서는 질병을 극복하고자하는 의지 '去, 棄' 및 구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부위가 반영되어 있다.

宋去疾『彙編』1433　宋棄疾『彙編』1428　牛疾首『彙編』2331

② 근심과 걱정에 관련된 命名
각종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고자 '去, 禦, 亡, 釋' 등 어휘를 첨부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長去憂『彙編』0856　和禦憂『彙編』1878
王亡戚『彙編』0615　史釋憂『彙編』1858

③ 유명 인물을 모방한 命名
고대 帝王 혹은 大臣의 이름을 모방하여 자녀의 立身揚名을 기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臧終古『彙編』1332　孟非子『彙編』1365　孫丹朱『彙編』1549
長相如『彙編』0789　韓得臣『彙編』2368

④ 출생 신분을 의미하는 命名
출생 신분을 사용하는 命名法으로, 정실부인의 자식에게는 '冢子, 餘子'

www.kci.go.kr

를 사용하고, 妾 의 자식에게는 '庶子'를 사용하고 있다.[8)]

楅冢子『彙編』3102 王餘子『彙編』0594 邰庶子『彙編』2202

⑤ 지명 및 출생 시간을 의미하는 命名

출생지역 및 본적 '五鹿, 方山[9)]'과 태어난 달 '五月, 稷月'을 사용한 命名法이다.

王五鹿『彙編』0458 方山『彙編』5300 王五月『彙編』0462
趙稷月『文物春秋』2005.6

⑥ 신체적 특징 및 성격을 의미하는 命名

'童頁'은 '머리카락이 없는 모습'[10)]을, '言繁'은 '말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嬰兒에게서 느껴지는 직관적 느낌을 이용한 命名法이 보이고 있다.

首童頁『彙編』3645 郾言繁『彙編』1963

⑦ 부정사를 첨가한 命名

複名중 부정사를 사용할 경우 대부분 '부정사+부정의미'의 형식으로 命名하고 있다. 예를 들어, '亡忌', '亡畏', '亡私' 등. 따라서 그 의미는 긍정적 의지를 표명한다. 그러나 일부 인명에서 '부정사+긍정의미' 형식으로 命名하고 있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할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吳鎭峰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이한 이름을 만들고자하는 심리'[11)]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

8) 蕭曉暉, 「古璽名字資解詁」, 『漢字硏究(一)』, 532쪽.
9) 施謝捷, 「古璽雙名雜考」, 『中國古文字硏究(一)』, 125쪽.
10) 施謝捷, 「古璽雙名雜考」, 『中國古文字硏究(一)』, 125쪽.
11) 吳鎭峰, 『金文人名彙編』, 472쪽.

www.kci.go.kr

閻亡智『彙編』2982　長不敬『彙編』0864　賜莫臣『彙編』3025

⑧ 이름 중간에 '生'字를 추가하여 命名

'生+某' 형식의 複名은 燕나라 인명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형식이다. 金文에서도 유사한 인명이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史虢生', '番匊生' 등. 吳鎭峰은 이러한 형식의 인명 중, '虢'과 '匊'은 어머니의 姓氏를 의미를 의미하며 출신 外家를 강조한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12]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음 燕나라의 인명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姓氏가 아버지를 쫓은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를 쫓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長生午『彙編』3949　東方生乘『彙編』3961　王生聘『彙編』0645
公孫生易『彙編』3897　喬生兵『彙編』4092

이상 戰國시대 印章에 보이는 複名의 특징은 총8가지로 분류 할 수 있겠다. 일부 지명, 인명, 신체적 특징 등 어쩔 수 없이 사용된 複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單名에 근거한 命名法이다. 따라서 複名은 여전히 戰國시대의 주류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나오면서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부르는 상대마다 호칭이 다른 점을 알고 불러야 예의와도 어긋나지 않는다. 예로부터, 부모의 이름자는 귀로는 들어도 입으로는 함부로 부르지 못하였다(耳可得聞, 口不可得言). 다만 부득이 남 앞에서 말해야 할 경우는 '某字, 某字'로 말하였다. 또 스승과 尊長에 대하여도 이름을 피하고 號로써 대신하였다.

이처럼 이름을 중요시한 우리의 조상들은 성인이 될 때, 관례에서 字를 지

12) 吳鎭峰,『金文人名彙編』, 470쪽.

www.kci.go.kr

어 그것으로 이름을 대신 불렀던 것이다. 또한 이름을 항렬자에 따라 지음으로써 氏族간 行列과 촌수를 쉽게 구별하여 서로 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이것으로 남의 譜牒도 알아볼 수 있는 슬기를 발휘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동양에서 이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고 이것이 姓名學(人名學)으로까지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비록 중국의 戰國시대 인명자료를 분석한 것이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人名 발전의 역사적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戰國시대의 人名은 秦漢이후의 人名과 그 構造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戰國시대 人名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古籍 및 출토 문헌의 정확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羅福頤,『古璽彙編』(『彙編』), 北京:文物出版社, 1994.
小林斗盦,『中國璽印類編』(『類編』), 天津:人民美術出版社, 2004.
蕭春源,『珍秦齋藏印(戰國篇)』(『珍秦』), 마카오:澳門基金會, 2001.
陳松長,『湖南古代璽印』(『湖南』), 上海:上海辭書出版社, 2004.
王人聰,『香港中文大學文物館藏印續集一』(『續一』), 홍콩: 香港中文大學文物館, 1996.
伏海翔,『陝西新出土古代璽印』(『陝西』),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5.
王泉根,『華夏取名藝術』, 臺北:雲龍出版社, 1993.
潘英,『中國上古史新探(下)』, 臺北:明文書局, 1985.
北京大學中文系中國文學史教研室編,『先秦文學史參考資料』, 北京: 中華書局, 1996.
吳鎭峰,『金文人名彙編』, 北京: 中華書局, 2006.
李學勤,「先秦人名的幾個問題」,『當代學者自選文庫·李學勤卷』, 合肥: 安徽教

www.kci.go.kr

育出版社, 1999.
劉釗,「古文字中的人名資料」,『出土簡帛文字叢考』, 臺北: 古籍出版社, 2004.
蕭曉暉,「古璽名字資解詁」,『漢字研究(一)』, 北京: 學苑出版社, 2005.
施謝捷,「古璽雙名雜考」,『中國古文字研究(一)』, 長春: 吉林大學出版社, 1999.

www.kci.go.kr

❖ ABSTRACT

A Study of Names Used on Seals in the Age of Civil Wars in China

Byung-soon Moon

The "Name" is not only representative of a person but also a cultural heritage containing national cultures. Therefore, we can easily find some cultural value from the square inch sized seal texts.

This article is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names appeared on the seals in the Warring States Period. In the Warring States Period, single name is generally used for naming and this style can be divided into 13 categories.

Except unavoidable cases, such as using the name of place, the name of person or the reason of physical characteristics, using double name is very rare and this style can be categorized by 8 kinds.

In result, using double name is defined as a fringe method of naming in the Warring States Period. In addition, we can find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names of Warring States Period and those of Post-Qin and Han Dynasties in the structural aspects.

In conclusion,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names from the Warring States Period can be a great help to better understanding of ancient books and unearthed documents.

Key Words

인장, 인명, 전국시대, 고문자, 인문, 전각

Seal, Name, Warring States Period, Ancient writing, Seal Text, Seal Engraving

논문접수일: 2010. 2. 22.
심사완료일: 2010. 4. 10.
게재확정일: 2010. 4. 15.

www.kci.go.kr